

[붙임1] 국악부문 김상진 작곡가 프로필 및 작품해설



김상진 / 1996

- 2015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졸업
- 2015,16년 제31회, 32회 동아국악콩쿠르 작곡부문 입상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3학년 재학 중

국악관현악을 위한 ‘사시풍류(四時風流)’

작곡 배경

사시풍류란 늘 풍류로 지낸다는 뜻이다. 사시풍류를 주제로 선택한 데는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시기를 지나 좀 더 풍류스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담아 밝고 쾌활한 멜로디로 주제를 표현했고 ‘사시풍류’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갔다.

작품해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며 맑고 따스한 봄, 푸른 산과 들로 생기 가득한 여름, 땀 흘린 결실을 맞이하는 풍성한 가을, 자신을 돌아보며 한해를 정리하는 평온한 겨울, 이런 계절의 순환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다양한 우리 전통악기들을 고루 사용하여 ‘사시풍류’라는 주제를 하나로 묶어 보다 더 풍성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였다. ‘사시풍류’의 말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즐기며 항상 풍류스러운 시대가 왔으면 한다.

[붙임2] 국악부문 김현섭 작곡가 프로필 및 작품해설



김현섭 / 1991

- 제1회 신영컬처챌린지 음악부분 대상
- 제35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작곡 금상
- 제27,29회 동아국악콩쿨 일반부 작곡 은상
- 2017 한국민속촌 홍보영상 음악감독 및 작곡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전문사 재.

향비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천장고임 '학을 탄 선인'/ 협연 향비파 정영범

작곡 배경

가야금과 거문고, 그 사이의 음색을 지닌 향비파. 나에게 향비파는 신들만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해왔다. 우연히 고구려 고분벽화를 접하게 된 나는 벽화에 그려져 있던 '학을 타고 있는 선인(仙人)의 미소'에서 처음 향비파 소리를 들었을 때 느꼈던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향비파의 선율로서 선인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국악관현악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작품해설

오묘한 선인(仙人)의 미소와 꼭 닮은 악기 향비파. 명주로 만든 현을 사용하는 향비파는 철로 만든 현을 사용하는 중국의 비파와 완전히 다른 음색을 지니고 있다. 향비파는 고구려의 현악기 중 하나로, 고구려와 관련한 여러 기록과 벽화에 등장한다. 광복 이후 잠시 그 명맥이 끊어진 적도 있으나, 향비파는 여전히 연주되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악기이다. 이런 향비파이기에 오묘한 선인의 미소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치 나 자신이 학을 타고 노니는 선인이 되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각박한 현실에서 한걸음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함으로 다가가고 싶다. 작품의 내용은 유운의 형성 - 천(天)계 - 현(現)계 - 선인의 독백 - 다시 천계로...로 전개된다. 전반적인 곡구성을 대위적인 진행과 화성적인 진행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적 구사를 발현하고자 하였다.



협연 향비파 정영범

- 2010년 edinvergh festival fringe artist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 2014년 SBS 놀라운 스타킹 출연 '국내유일 남성 비파연주가'
- 경기도립국악단,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 협연
- 2015년 일본 동경 국립노극장 '미마지의 무악' 공연

[붙임3] 국악부문 박병오 작곡가 프로필 및 작품해설



박병오 / 1967

- 대한민국 작곡상 및 신악회 작곡상
- 개인 작곡 발표회 6회 개최
- ARKO 한국창작음악제 3회 당선 및 우수작곡가 감사장
- 일본 무사시노음악대학 대학원 작곡과 졸업 및 별과 지휘과 졸업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출강

12현 소아쟁 협주곡 ‘진혼(鎭魂)’ / 협연 소아쟁 김참다운

작곡 배경

나는 오래 전부터 나를 위한 진혼곡을 쓰려고 했었다. 나의 건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내는 방법으로 곡을 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얼마전, 오랜기간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께서 임종을 하셨다. 그리고 임종하시기 몇주 전부터 나는 그동안 쓰기를 망설였던 진혼곡의 첫 장에 음표들을 그려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완성을 하였다.

작품해설

이 곡은 아쟁의 찰 현에서 오는 일반적인 음색에서 벗어나 보고자 다양한 각도와 현의 마찰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음색을 찾아보고자 의도한 곡이다.

아쟁의 거칠고 부드러운 음색, 따뜻하고 차가운 음색, 굽고 가는 음색과 발현에서 오는 또 하나의 다른 음색을 관현악의 지속음(持續音)과 함께 공간에서의 다양한 음색이 어떠한 음향(音響)으로 변화해 가는지를 느껴 보고자 한다.



협연 소아쟁 김참다운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
- 2013년 김참다운 아쟁산조 음반 발매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 아쟁앙상블 Bow+ing 멤버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붙임4] 국악부문 심진섭 작곡가 프로필 및 작품해설



심진섭 / 1958

- 단국대학교, 독일 Heidelberg-Mannheim 국립음대 졸업
- 1998년 일본 고베 국제 컴퓨터음악제 한국 측 초청작곡가
- 제61주년 제헌절 경축식 공식행사 위촉
- 자연에서 온 새로운 화성이론 완성 및 출판
『국악과 양악을 위한 5도화성론』
- 2014,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오페라
<단군왕검> 대본 및 작곡
-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작악회 회장 역임

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해학(諧謔)' / 협연 북 이상경

작곡 배경

14년 전 나는 작곡을 멈추었다. 그동안 해오던 나의 음악이 자연에 반(反)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자연에 반하는 음악은 사람에게 좋은 음악도, 인류 미래의 음악도 될 수 없음은 자명하였다. 절필(絶筆)하고 음악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살피고 있던 중 여창 가객 황숙경 선생을 통하여 정가를 알게 된 나는 국악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음악이며 오래전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왔던 그 음악 속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국악의 진수(眞髓)를 사용한 새로운 자연음악!’

작품해설

혹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정서가 ‘한(恨)’이라고 말한다. 외세의 민족말살 정책으로 세뇌되어진 그 “한(恨)”이 지금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 단군조선과 환웅의 배달국 시절 우리는 패권주의가 아닌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대륙을 다스렸던 웅혼한 기상을 가진 민족이었다. 근세에 침략과 수탈을 당하면서도 그 “한”을 “해학”으로 승화시켜서 풀었다. 판소리나 탈춤 등 중요한 국악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내용이 “한”이더라도 언제나 “해학”을 바탕으로 풀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 협주곡 “해학”>은 이러한 생각들에서 나온 작품이다. 북은 전통의 장단을 끊임없이 변주하였고, 관현악의 선율은 5음계를 사용한 전통 가락의 틀 속에서 만들었으며 여기에 <5도화성론>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화성적 국악”을 만든 것이다. 또한 관현악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국악의 관현악적인 다양성을 시도해 보았다.



협연 북 이상경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 2011,12 서울시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현,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단원 역임
- 2013 KBS 국악관현악단 대학생 협연 (모듬북협주곡 '타')
- 2017 정동극장 청춘만발 이달의 아티스트 선정 (groove&)

[붙임5] 국악부문 이정호 작곡가 프로필 및 작품해설



이정호 /1982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빈, 슈베르트음악대학 작곡 석사(Diplom)과정 최우수 졸업
- 국악그룹 <열두 달> 리더 및 음악감독
- 온나라국악연경대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등 수상
- 현) 대구시립국악단 상임단원

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鎮魂, Requiem)/ 협연 의정부시립합창단, 소리 홍준표/이나래

작곡 배경

“... 삶의 모든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아주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 슬픔, 그리고 죽음이다. 시간을 이해하고, 슬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죽음과 함께 하는 것 - 이것들 모두 맑고 투명한 사랑을 요구한다...”

저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P.11 중에서... 저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작품해설

‘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 관현악을 위한 <진혼>’은 무속음악 ‘진도씻김굿’을 모티브로 하여 쓴 국악레퀴엠이다. 라틴어로 된 가톨릭 미사의 합창 가사와 진도씻김굿 길 님음 중 ‘애소리’와 ‘나무아미타불’을 차용하여 가톨릭, 불교 등 종교를 뛰어넘어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곡이다. 또한 이는 곧 살아서 남아 있는 사람들 마음의 치유도 포함된 것이며, 그 궁극적 의미는 ‘삶에 대한 위로’인 것이다. 곡은 크게 3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둠의 지배자에게 몸이 빼앗기는 장면’ <서곡, 비극의 시작>, <혼란 속 두려움>, <휘몰아치는 파도, 귀신의 춤>, <슬픔, 분노, 고독>, ‘넋을 위로하는 의식’ - <진혼, 넋을 고이 달래어 잠들게 하다>, <떠나보내는 길, 잡고 싶은 마음>, <흩날리는 꽃> 그리고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 모두를 위한 기도’ 로 마무리된다.

협연 소리꾼 홍준표	협연 소리꾼 이나래	협연 합창 의정부시립합창단
 <p>-2017 185회 대구시립국악단, 성남시립국악단 협연</p>	 <p>-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KB소리상 대상</p>	

[붙임6] 국악부문 조석연 작곡가 프로필 및 작품해설



조석연 / 1970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독일 Rostock 국립음악대학 작곡과 석사(Diplom) 및 최고학위과정(Konzertexamen) 졸업
- 국립발레단 발레조곡 “왕자호동” 작곡
- 북독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피아노협주곡 “KREIS” 작곡
- 현) 경주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실용음악공연예술학부 교수

국악관현악을 위한 ‘상념’

작곡 배경

자연으로부터 이 작품의 모든 재료를 얻으려고 준비하고 노력하였다. 삶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듯이 우리 삶 속의 자연은 계절별로 항상 변색되며 흙으로 돌아가 다시 봄이 찾아오면 소생을 시작한다. 자연의 이치가 보여주듯 이 작품 “상념”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작곡하였다.

작품해설

소나기가 앞이 안보일정도로 심하게 내리는 유럽의 작은 도시의 느낌으로부터 이 작품 “상념”은 시작된다. 반드시 여기에서의 “상념”은 고민이나 고뇌는 아니다. 오랜 시간 해외에서의 삶에 있어 조국에 대한 향수, 그리움 등이 “상념”으로 나타나는 이 작품은, 국악 관현악이 현재 가능한 기술 내에서 무조적 성격으로 시작 진행되며 서서히 한국 조성적색채로 변화하는 음악이다. 템포 역시 “상념”이라는 작품제목에서 보여주듯 템포 역시 아주 느린 것부터 중간빠르기와 아주 빠른 빠르기의 변화 무쌍함을 표현해 주었다. 박자의 변화도 템포의 변화와 대응하며 단약장의 작품인 만큼 복잡하지 않은 선에서 자유로운 변화를 느끼는 동시에 작품 전체를 감상할 때 “상념”의 작품제목을 관객들 역시 느낄 수 있게 작곡되었다.